

KC NEWSLETTER

VOL.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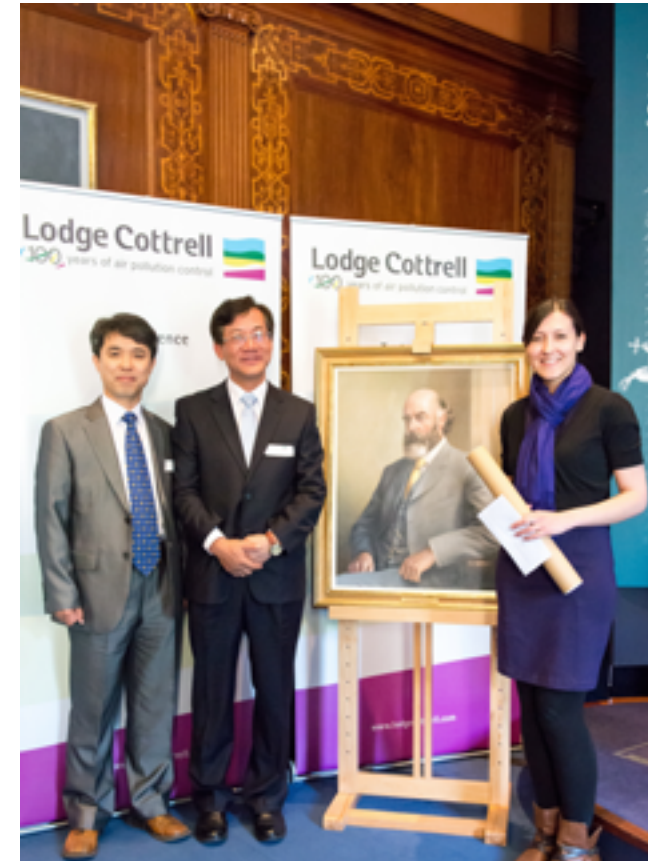


100th
Lodge Cottrell Anniversary

Lodge Cottrell Celebrates 100 Years of Air Pollution Control

Sir Oliver Lodge FRS이 설립한 Lodge Cottrell이 6월 3일, 런던 왕립협회에서 설립 100주년을 기념식을 가졌다. 런던 왕립협회는 1,660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협회로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들이 협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현재 왕립협회는 약 1,450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80명이 넘는 노벨 수상자들이 있다. 또한, 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왕립협회의 공식 후원자이기도 하다.

Lodge Cottrell의 100주년 기념회에는 60명이 넘는 손님들이 참석하였고, 그 중에는 Sir Oliver Lodge이 1900년부터 1919까지 총장이었던 버밍엄 대학교의 교수들과 연구원들도 있었다. 버밍엄 대학교가 영국의 엘리트 대학교로 성장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한 Sir Oliver Lodge의 업적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Lodge



Cottrell을 대표하여 김성진 법인장이 버밍엄 대학에 Sir Oliver Lodge의 초상화를 기증하였다.

또한, Lodge Cottrell은 과학의 발전과 과학자들의 교육에 힘을 기울인 Sir Oliver Lodge를 기념하여 제 1회 Sir Oliver Lodge상을 버밍엄 대학에서 환경보호관련 연구를 한 Hannah Rose양에게 수여하였다. 상장은 박승원 전무와 김성진 법인장이 전달하였다.

왕립협회에서 열린 100주년 기념회에 참석한 게스트 스피커들 또한 Sir Oliver Lodge의 세계적인 공헌을 입증하였고, Roy Harrison 교수는 ‘전기집진기가 전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을 조기사망으로부터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눈에 띄게 발전시켰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했다.

게스트 스피커들 중 왕립협회의 역사와 Sir Oliver Lodge의 사회적 기여





에 대해 발표한 Keith Moore는 Oliver Lodge가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이자 자선사업가인 Andrew Carnegie와 함께 골프를 치는 사진을 이 날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다. 그 다음으로 Roy Greaves는 대기 오염 방지(APC)기술의 시작과 Oliver Lodge가 1902년에 에드워드 7세로부터 나이트 직위를 서임 받게 된 계기에 대하여 몇 마디를 나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C 그린홀딩스의 박승원 전무는 KC그린홀딩스의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Sir Oliver Lodge는 대기오염 방지기술에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Heinrich Hertz와 Guglielmo Marconi와 함께 라디오 통신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그는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BBC 라디오를 통해 방송을 하기도 하였다. Lodge는 그리고 내연기관의 점화 플러그의 한 종류를 개발하여 자동차 엔진의 발달에도 기여했다.

공식행사가 끝난 후에는 완전한 늦봄의 태양이 내리쬐는 템스강 유람선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유람선 투어를 하면서 템스강이 런던이 세계적인 항구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었고, 대기오염 방지설비와 함께한 Lodge Cottrell의 100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았다.

KC솔라에너지 영광염전태양광발전사업 건설공사 및 관리운영위탁계약 수주



글: 박경선 대리

지난 7월 8일 KC솔라에너지(주)는 디솔라에너지(주)(영광군 백수읍 하사리)와 영광염전태양광발전사업건설공사(11MW급, 233억)계약과 관리운영위탁계약(20년, 약 68억)을 함께 체결하였다.

영광염전태양광발전사업건설공사의 발주자인 디솔라에너지(주)는 KB자산운용(주)와 한국중부발전(주)가 주주사로 참여하여 설립된 SPC이며, 이번 EPC계약은 KC솔라에너지(주)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수주이다. 또한 관리운영계약은 지난 2012년 부산신호유지관리용역 계약 이래 두번째 장기 유지관리 용역계약으로, 이는 KC솔라에너지(주) O&M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미래의 발전가능성을 밝히는 계약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나 이번 프로젝트는 KC솔라에너지(주)로서는 처음 시도해 보는 폐염전을 활용한 태양광 건설분야이며, 다양한 태양광 경험 축적을 통해 태양광 전문회사로 거듭날 좋은 기회이다. 7월말 착공하여 12월 31일 준공 목표로 풍부한 태양광 경험을 가진 KC솔라에너지(주)의 힘으로 준공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POWER-GEN Europe 2013

KC 그린홀딩스의 관계사인 Lodge Cottrell(LCUK)과 Nol-Tec Europe(NTE)이 참여한 POWER-GEN Europe 전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양사의 노력 덕분에 올해는 무려 100개국에서 1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LCUK/NTE 부스를 방문하였다. 특히, 폴란드, 터키, 칠레, 러시아와 영국 등 핵심 시장을 포

함한 70개가 넘는 기관과 회사들이 두 회사의 부스를 방문하여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LCUK와 NTE가 2010년 파워젠 유럽에 참가하면서 내세운 'Powering a Greener World' 라는 모토는 폐기물 전환 에너지와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이 주목 받았던 올해에도 어김없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LCUK/NTE 부스에서 NTE는 최첨단 회처리 기술(minijet Ash on Skid)을 선보였고, Lodge Cottrell은 폐기물 전환과 생물질 활용 기술 시장에 쓰이는 연도가스처리시스템을 홍보하였다. 금번 행사에는 이태영 사장, 박승원 전무, 김재수 선임뿐만 아니라 놀텍의 많은 직원들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LCUK/NTE 부스에서는 특별히 방문객들에게 Lodge Cottrell의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스위트피 씨앗을 나누어 주었고, 추첨을 통해 친환경 자전거를 선물 하였다. 전시회 행사가 끝난 후, KC 그린홀딩스팀의 멤버들은 다음날 KC Cottrell, Nol-Tec Europe과 Lodge Cottrell을 통합 185년동안 영업 한 업적을 축하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홀딩스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였다. 3일간의 전시회 참가를 통해 새로운 고객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고, 내년 쾰른에서 개최되는 POWER-GEN Europe 2014에서는 더 높은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 법인장 회의 개최

글: 이보람 사원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 클락에서 해외 법인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해외법인장 회의는 해외 & EPC사업부의 해외법인지원팀에서 주최하고, 각 해외법인의 법인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각 법인의 상황을 공유하고, 어려운 점을 논의하며,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두번째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번 법인장 회의에는 KCCN, KCVN, LUCK, KCTW의 법인장들과, 서동영부사장, 박승원전무, 송우일상무, 안세홍상무, 윤영수상무, 염동균선임, 해외법인지원팀의 최인수선임과 저 이렇게 총 1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6월 27일 밤, 각지에서 법인장님들과 본사에서 출발하는 팀이 모두 필리핀 클락 공항으로 모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페트

론 현장에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있어, 현장과 가까운 '클락'에서 모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클락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약 2시간 거리에 있으며, 이전의 미공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렇게 27일 밤에 모두 모였고, 다음날인 28일, 두번째 법인장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session에는 각 법인별 상반기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해외법인지원팀의 향후 업무에 관한 발표, 오인석 법인장님의 필리핀 소개, 서동영 부사장님의 KCGH 조직개편 및 인수/MOU 관련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session에는 Brain Storming 형식으로 모두 자유롭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의주제로는 법인의 교육문제, Inter-company rule, 법인간, 법인과 본사간의 communication 문제 등등이 주로 논의 되었으며, 자유롭게 토론하고, 향후 Action plan을 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토론의 시간을 통해 각 법인장님들과 해외 법인 지원팀, 그린홀딩스가 공통된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향후 법인간의 협업과 본사의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현재 해외&EPC사업부의 기술팀에서 진행중인 Petron GSA System현장에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에는 KCCN의 Qu bo와 Liu Runpu가 현장소장으로 근무 중이었고, 필리핀 현지에서 채용한 Lorence Manda와 Manuel Delfino를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Qubo에게 간단히 공사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재 설치가 완료된 1&2호기 GSA와 Bag filter설비를 돌아보았습니다. 찌는 듯 무더운 날씨에 KC Cottrell이라는 같은 마크를 가슴에 달고 일하는 KCCN의 직원들과 필리핀 직원들을 보니 마음 한 켠 자랑스러움이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현장 방문을 마치고, 현지 직원들과 함께 현장 주변의 한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큰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일정 외에도, 첫췌 날 저녁에는

닭뚥집과 소주를 마시며 친목을 도모하였고, 둘째날은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외법인과 KC본사가 협업하여 해야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 각국에 흩어져 있던 법인장님들과, 본사의 지원부서가 모두 모여, 어려움을 서로 토로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향후 협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신설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해외법인지원팀'에서도 향후 우리의 해외법인을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야 할 지 업무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뉴스레터를 빌어, 해외에서 애쓰시는 법인장님들과 KC의 주재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C코트렐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글: 이상한 사원

KC코트렐은 국내 및 해외 법인까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픈하였다. 금번 도입된 시스템은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느 곳에 서든 개인 PC와 모바일(아이패드)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1대1 회의뿐만 아니라 다자간 회의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출장이 잦은 KC코트렐 직원들의 시간 절약 및 실시간 문서공유 및 의견교환을 통한 미스 커뮤니케이션의 감소로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입된 시스템은 Cisco사의 제품이며 개별 PC의 Jabber Video for TelePresence 프로그램에 기존 메일 아이디와 패스워드

로 활용하면 된다. 검색창에 통화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이름을 한글로 입력한 후, START 버튼을 클릭하면 통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다자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검색창에 3206을 입력한 후, 1111, 2222, 3333, 을 입력한 후 #버튼을 입력하면 각 방별로 최대 12명의 인원이 동시통화를 진행할 수 있다. 화상회의 뿐 아니라 공동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인 WebEx도 함께 오픈하였다. WebEx는 최대 25명이 한 번에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문서를 공동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kccottrell.webex.com으로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 전사교육을 통해 사용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지식경영 시스템과 함께 화

상회의 시스템의 도입으로 KC코트렐의 스마트워크 환경이 점차 구축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IT인프라를 구축하여 직원들의 스마트한 업무 환경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 중 경제인, 녹색산업 협력 다짐

글: 이상한 사원

KC코트렐 기술연구소 홍정희 팀장이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함께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제5회 한중 녹색경제협력포럼”에 KC코트렐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포럼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상열 OCI 부회장, 황승현 주칭다오영사 등 한국측 100여명과 완지페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리첸 칭다오시 당서기, 장신치 칭다오 시장 등 중국측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열렸다.

포럼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업인들이 “에너지 온실가스 저감기술 교류 확대방안과 환경, 자원순환 산업의 미래전망”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홍정희 팀장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해 이를 제거하는 기술과 시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였다.



백주현 대사, KC코트렐 카작스탄 현장 방문

글: 오강환 상무



지난 6월 백주현 대사가 카작스탄의 현장과 Gres1 방문하였다. KC코트렐의 오강환 상무는 KC코트렐을 대표하여 오지 현장까지 방문한 백주현 대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이 날 만남에서 오강환 상무는 현지 PIT 개요와 향후 KC그린 홀딩스가 카작에서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과 기술에 대해 간략히 PT을 하였다. 이에 백주현 대사도 파블루다르 환경관련인 모임에서 주지사와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던 말씀을 전하였다. “파블루다르 주의 대기오염이 너무 심각하여 주민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알고 있다. 마침 한국의 훌륭한 환경 전문기업인 KC코트렐이 에키바스투즈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 기

업을 통해서 환경문제를 해결 해 보라”고 주문하였고, 파블루다르 주지사는 “그러면 빠른 시간 내 환경문제 관련기업 약 30개 업체를 소집해 줄 테니 KC가 낱자를 잡아서 PT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하였다. 이 진행에 대한 창구는 대사관 이병훈 참사관이 진행하기로 하였고, 백주현 대사는 PT자료를 준비할 때 기술설명도 중요하지만, 저들은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제일 관심이 있을 것이니, 꼭 참조하라고 조언해 주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메일로 보고해 주면 대사가 주지사를 계속 압박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Gres1 G.D 리스칸을 만나서도 “KC가 이곳에서 5년간 고생을 했는데 다른 일을 더 만들어 줘라. Gres2 증설 계획을 알고 있다. 그 계획을 KC에게 알려줬냐? KC가 꼭 참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하게 주문하였다.

Gres1 G.D 리스칸도 “당연히 알려줄 것이고 본인도 KC가 입찰에서 수주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백 대사는 한국기업의 비즈니스에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분으로 참사관이 촬영한 사진을 직접 Face Book에 올려 KC를 세계에 알리겠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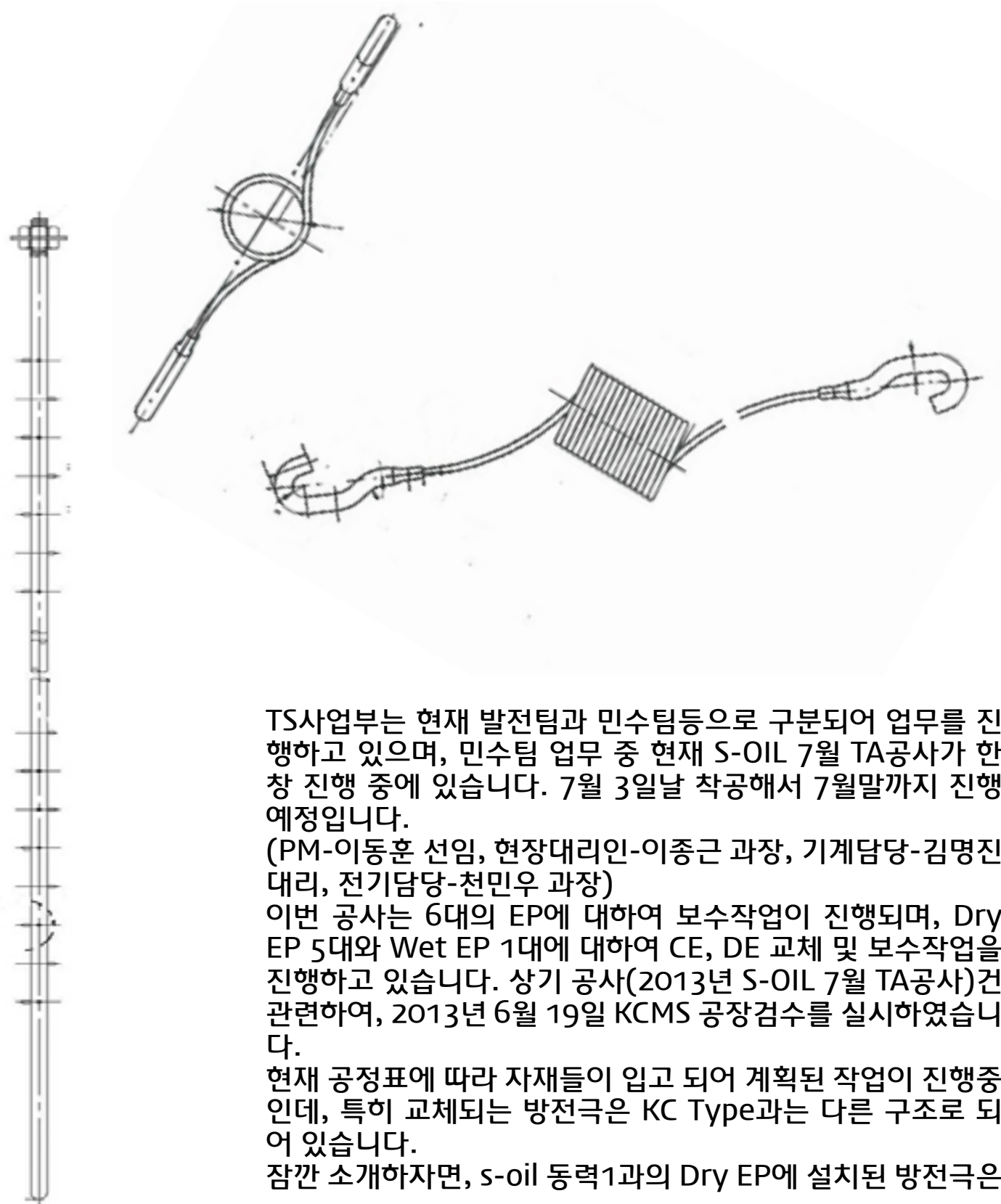
점심식사는 예정대로, KC코트렐 숙소에서 이루어 졌으며. 수행인원과 고려인 대표까지 총 14명이 좁은 공간이었지만, 좋은 분위기로 즐거운 식사를 하였다.

또한, 김성수 목사도 교회 건축 등 매우 바쁜 상황임에도 큰 아들까지 대동, 부자가 여기까지 대사님을 수행하며 헌신적으로 통역을 해 주었다.



KC 코트렐, 좋은 공기이니까

글: 김명진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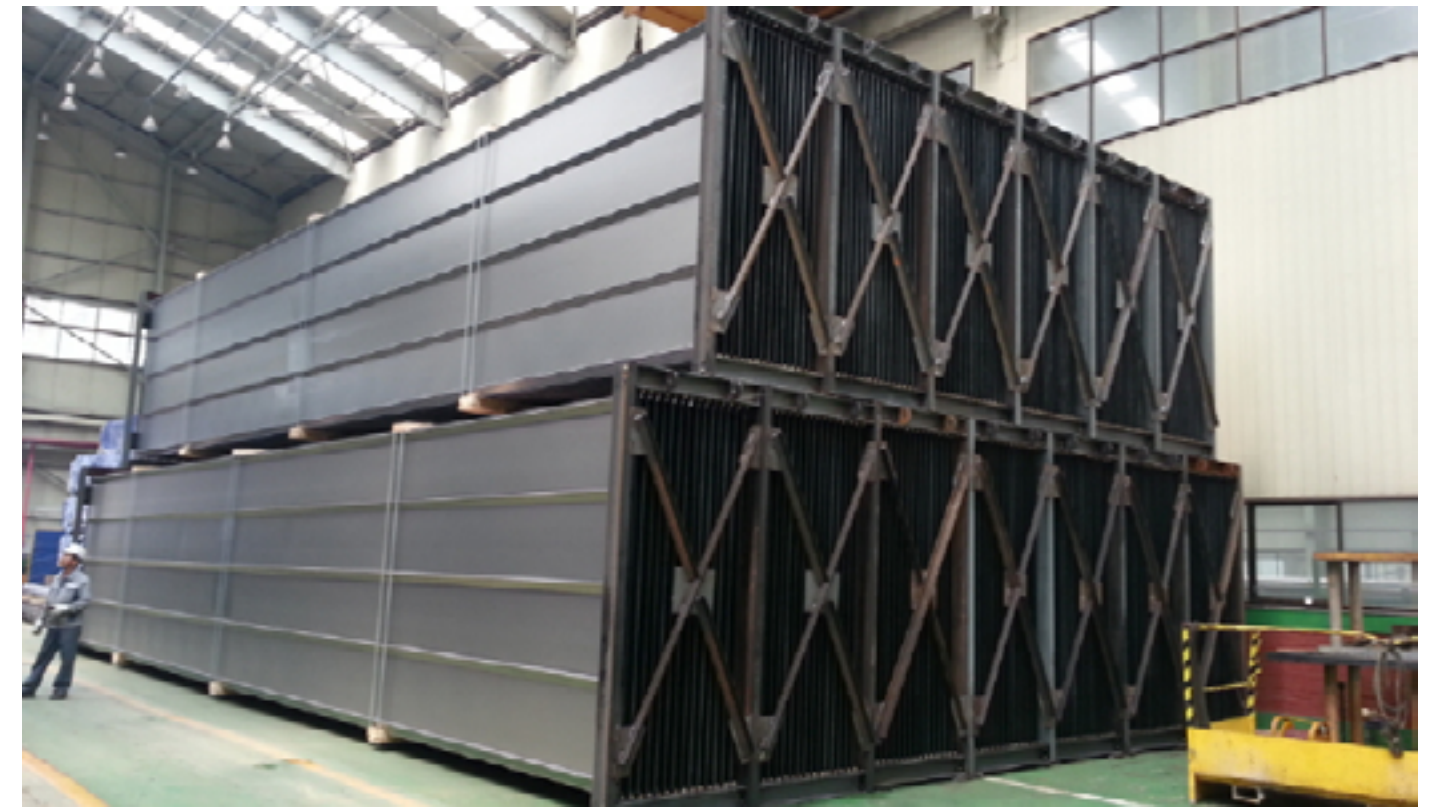
TS사업부는 현재 발전팀과 민수팀등으로 구분되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수팀 업무 중 현재 S-OIL 7월 TA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3일날 착공해서 7월말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PM-이동훈 선임, 현장대리인-이종근 과장, 기계담당-김명진 대리, 전기담당-천민우 과장)

이번 공사는 6대의 EP에 대하여 보수작업이 진행되며, Dry EP 5대와 Wet EP 1대에 대하여 CE, DE 교체 및 보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공사(2013년 S-OIL 7월 TA공사)건 관련하여, 2013년 6월 19일 KCMS 공장검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공정표에 따라 자재들이 입고 되어 계획된 작업이 진행중인데, 특히 교체되는 방전극은 KC Type과는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자면, s-oil 동력1과의 Dry EP에 설치된 방전극은



Coil 방전극으로 이번 공사시 전량 3300개 교체예정입니다.

또한, 분해2과의 Wet EP는 SPIKE Type으로 Round Bar에 Spike가 용접되어 있으며, 재질은 316L이며 역시 전량 2500개 교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분해 2과 R2R EP는 CE,DE 전량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4도에 이르는 무더위와 짧은 공기속에 이번 프로젝트가 한 건의 사고 없이 끝나도록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Farmsecure Energy MOU 체결

글: 홍은숙 대리



KC코트렐은 지난 6월 14일 바이오매스 발전소 EPC 사업자로 Farmsecure Energy 와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바이오매스 프로젝트는 남아프리카 농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목재 펠릿, 우드 칩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KC 코트렐은 미니 EPC 사업 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KC 코트렐과 MOU를 체결한 FarmSecureEnergy 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Waste to Energy 개발업체로 모회사인 FarmSecure는 남아프리카 9개 주에 농장을 운영 하고 약 4,500명의 직원과 함께 전세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식품 공급을 위해 애 쓰고 있다. 향후 KC 코트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쪽에 위치한 Mpumalanga지역에 바이오매 스 발전소를 설립하고 ES Division 관계사들을 통해 얻은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바이오매스 발전소 O&M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자재 동향 뉴스 스크랩

스크랩: 정희정 사원

[냉연동향] 냉연 3사 하반기, 상반기만큼만

2013-07-06 스틸데일리

■ 이슈와 전망

1. 포스코와 냉연 3사

포스코와 대우차의 관계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동안 현대,기아차보다 대우차에 들어가는 연계물량이 다소 비싼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협상테이블에 포스코 와 대우차가 앉아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고 3분기 주문 투입분에 반영할 것 이라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냉연 3사의 자체 하반기 전망 분석이 한창인 가운데 ▲수요 산업의 침체 ▲미국의 출구전략 ▲중국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상반기 대비 수익성은 다소 떨어질 것 이라는 입장이다. 상반기 수준의 판매량 유지 목표와 수익성 위주 수주활동 강화 등 해오던 것을 지키며 틈틈이 신규시장을 노리겠다는 전략이 우선시 되고 있다. 더불어 환 손실 축소를 위한 환 리스크 관리도 논의되고 있다.

7월 1주 냉연도금재 유통가격

단위: Kg/원, 현금가, 가공비 미포함, 상차도 기준

품목	규격	포스코제품		냉연3사	
		공장도	판매점	공장도	판매점
CR	1.2mm	1180	920	1180	910
PO	4.5mm	1110	860	1110	850
GI	1.2mm	1280	940	1280	920
EGI	1.0mm	1290	960	1290	930
HGI	2.3mm	1230	940	1230	910

2. 수입동향

일본 고로사들과는 8월적 열연코일 가격 협상이 마무리 단계다. FOB기준, 톤당 540~560달러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열연 가격은 CFR 기준, 톤당 520달러 이상이 점쳐지고 있다. 9월적 열연코일 가격은 이보다 좀 더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 유통동향

4. 유통가격 동향

포스코산 냉연강판(CR) 1차 유통 가격은 현금기준, 가공비 미포함, 상차도 기준 kg당 910~930원, 용융아연도금강판(GI) 유통 가격은 930~950원 수준이다. 전기아연도금강판(EGI) 유통 가격은 950~970원, 산세강판(PO) 유통가격은 860~880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열연용융아연도금강판(HGI) 유통 가격은 940~950원, HGI는 포스코와 하이스코의 열연코일 공장 보수공사 등으로 940원 수준까지 오른 뒤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냉연 3사 제품은 GI가 kg당 920~930원, EGI가 920~940원 등으로 포스코산 대비 30~40원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

2. 유통재고

포스코나 하이스코 유통코일센터의 일반유통용 계획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3개월분 가량의 재고량을 보이고 있다. 현대하이스코와 동부제철 유통업체들이 PO물량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가전3사 밴더들은 주문재의 경우, 약 2개월분이상의 재고량을 보이고 있다.

[열연동향] 가격 향방 혼란. 수입업계 멘붕

- 철광석 스폿 가격 상승 원/달러 환율 급등

2013-06-22 스틸데일리

열연 시장 가격 하락에 브레이크를 거는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열연 가격은 중국산이 톤당 66만원~67만원, 포스코산 수입대응재가 72만원~73

만원, 현대제철산이 74~75만원 정도에 형성되고 있다. 월말로 진입할수록 매출에 쫓기가 자금 회전에 목마른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저가품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춘절 이후 중국산 가격 하락과 함께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최근 수개월간의 상황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러나 최근 시장 가격 하락 요인이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상승 요인이 발생하기 시작해 변수가 되고 있다. 우선 외부적인 요인을 보면 중국의 철광석 수입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한 것. 톤당 120 달러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중국의 철광석 수입가격이 100달러 혹은 그 이하로 하락 할 것이라는 전망과 최근 가격 행보는 엇갈린 것이다. 다시 하락 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중국 내수 가격 하락 저지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향 중국산 오퍼가격도 톤당 505달러 (CFR SS400-A)에서 소폭 상승했다. 두번째 요인은 원/달러 환율이다. 미국의 양적 완화 중단이 올해 말 내년초 이루어질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1,130원 전후에서 하룻만에 1,150원 전후로 올랐다. 일각에서는 1,200원선까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중국산 거래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크다. 가격 지지요인이 되는 것이다. 세번째는 국내 생산업체들의 대응이다. 생산업체들은 출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문제로 가격인하에 저항이 상당하다. 주요 유통업체들은 국산의 경우 1~2만원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인하에 인색한 모습이다. 네번째는 시중 재고가 적다는 점 이다. 가격 하락으로 중국산 수입 계약량이 적었다. 또한 국산도 재고가 적은 상태다. 판매 부진 으로 매출도 부진하지만 재고도 적어 어느 때보다 재고 압박이 덜하다. 열연 시장을 둘러싼 환경 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여건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비수기에 진입한데다 매출에 쫓기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최근 주변 환경은 가격 하락 저지 요인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완만한 상승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시장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의문이다.



[STS동향] 실종된 성수기와 다가오는 비수기..

2013-07-06 스틸데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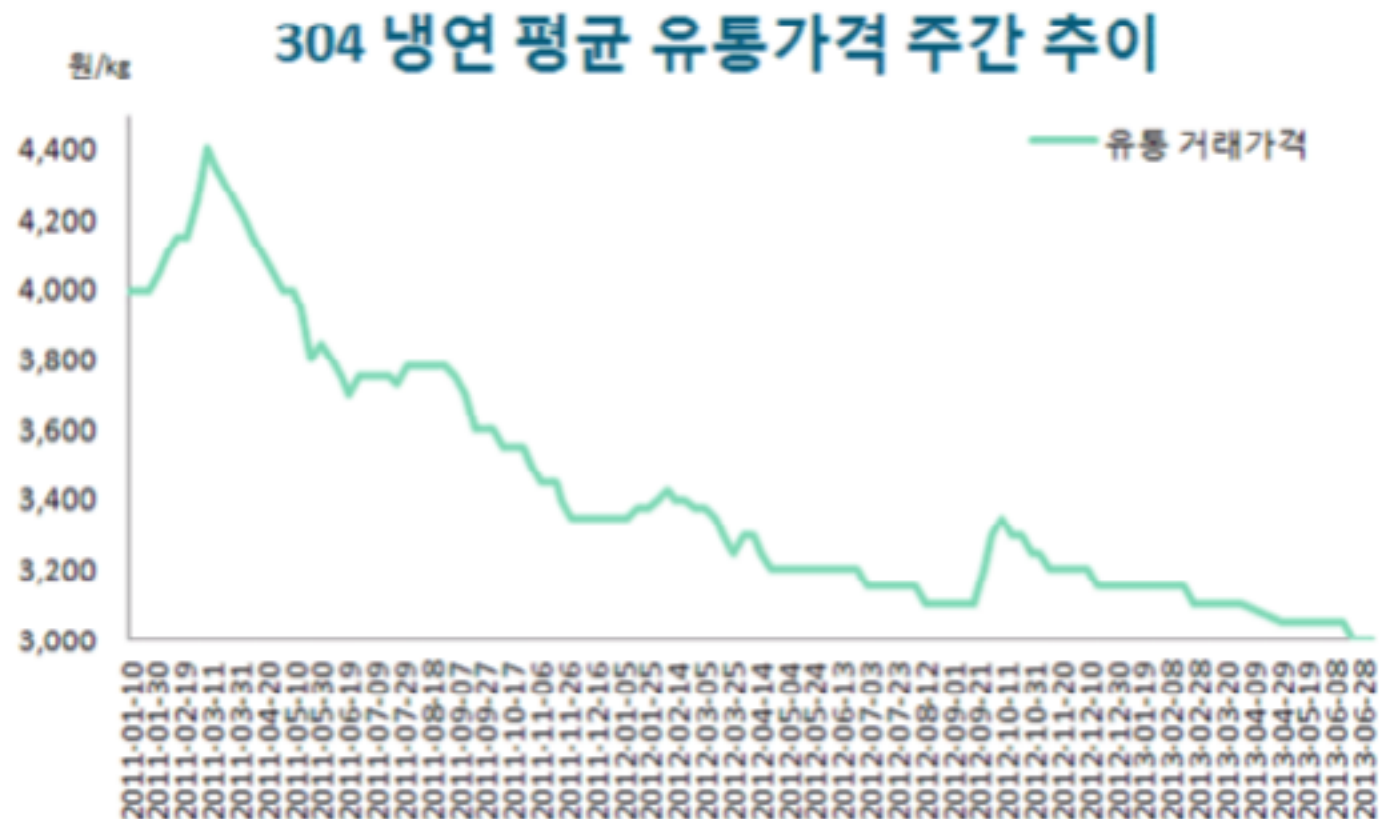
[국내동향]

7월 첫째주 스테인리스 유통시장은 성수기가 실종됐지만 비수기는 다가오는 모습이다.

이번주 내내 LME 니켈가격이 1만3,000달러대에서 맴돌았다. 이는 달러가 강세로 접어들고 이집트와 포르투갈의 정치적 혼란 등 유럽경제가 재부각되어 니켈가격 상승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수요부진으로 니켈약세를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중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닌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등 스테인리스 생산 메이커들이 비수기를 맞아 설비 대보수와 부하강증 확대 등 지속적으로 출하량 조절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통 구조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시중재고 조절 역시 중장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4 스테인리스 열연의 시중 판매가격은 kg당 2,900원대 수준이며, 304 냉연의 경우 kg당3,000원대 전후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동향] 아시아 STS 거둢 하락세

최근 아시아지역의 스테인리스가격 하락세가 거둢되며 비수기의 시작을 알렸다. 아시아지역의 STS 304 평균 거래가격은 2,250~2,300달러(CFR)로 톤당 50달러 하락했다. 주요 트레이더들에 따르면 일부 스테인리스업체들은 수주물량을 확보를 위해 톤당 20~30달러 할인을 추가로 요구하여 2,230~2,250달러에 거래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7~8월 비수기 등의 여파로 매입 움직임이 크게 줄어든데다가, LME 니켈가격 또한 약세장을 보이고있어 오퍼가격의 하락을 부채 질하고 있는 것이다. 기회복이 불확실한 점 등 전반적인 수요부진 때문에 오퍼가격의 약세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맑은 하늘을 생산하는 공장??

KC코트렐이 지구를 생각하는
고객사와 함께 합니다.



Global Clean Air Company

KC Cottrell

